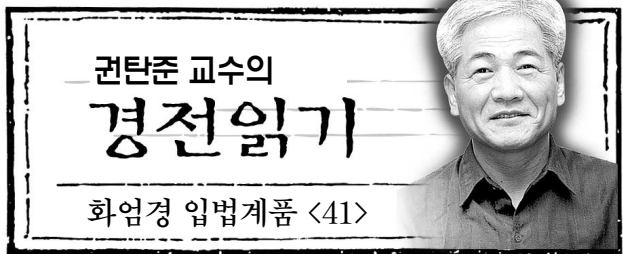


선재동자가 육향장자의 가르침을 받아 다음으로 찾아가는 선지식은 남쪽의 누각(樓閣)이라고 하는 큰 성에 있는 바시라(婆施羅)라고 하는 뱃사공이다. 누각성에 이르러서 보니 그 뱃사공은 성문 밖의 바닷가 언덕 위에서 십만이나 되는 장사꾼들과 한량없는 대중에게 둘러싸여서 바다의 법을 말하며, 부처님의 공덕바다를 방편으로 일러주고 있었다.

선재동자가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바시라 뱃사공은 선재동자가 이미 보리심을 내어서 보살도에 대해 묻는 것을 칭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이 성의 바닷가에 있으면서 보살의 ‘크게 가없이 여김을 으뜸으로 삼는 행(大悲幢行)’을 깨끗하게 닦았다. 나는 염부제에 있는 빈궁한 중생들을 보고 그들을 이익케 하려고 여러가지 고행을 닦으며, 그들의 소원을 모두 만족케 한다. 먼저 세상 물건을 주어 마음을 채우고 다시 법의 재물을 보시하여 환희케 한다. 파도가 밀고 가쁜 것과 물빛이 좋고 나쁜 것 등을 잘 분별하여 안다. 또 일월성신이 돌아가는 도수와 발과 낮 등의 여러가지 시각과 누수(漏水)가 늦고 빠를을 잘 분별하여 안다. 또 배의 월물과 나무가 잘 연한 것과 기관이 만만하고 거센과 물이 많고 적음과 바람이 순하고 거슬림을 잘 안다. 모든 편안하고 위태로운 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갈만하면 가고 못갈만하면 가지 않는다. 선남자여, 나는 이런 지혜를 성취하여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한다.

선남자여, 나는 바다에 있는 모든 보배의 섬과 모든 보배의 처소와 모든 보배의 종류를 안다. 나는 모든 용궁의 처소와 모



권단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41>

바시라 뱃사공의 법문

생사의 바다 잘 아는 지혜 갖춰

대비로써 중생구제의 보살행 펼쳐

은 아차공전의 처소와 모든 귀신들의 공전의 처소를 알고 잘 피하여 그들의 난을 벗어나다.

또한 소용돌이치는 데, 얕은 데, 깊은 데와 파도가 밀고 가쁜 것과 물빛이 좋고 나쁜 것 등을 잘 분별하여 안다. 또 일월성신이 돌아가는 도수와 발과 낮 등의 여러가지 시각과 누수(漏水)가 늦고 빠를을 잘 분별하여 안다. 또 배의 월물과 나무가 잘 연한 것과 기관이 만만하고 거센과 물이 많고 적음과 바람이 순하고 거슬림을 잘 안다. 모든 편안하고 위태로운 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갈만하면 가고 못갈만하면 가지 않는다. 선남자여, 나는 이런 지혜를 성취하여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한다.

선남자여, 나는 안전한 배로 장사하는 무리들을 태우고 편안한 길을 가게 하며 다시 법을 말하여 기쁘게 하면서 보배 및

는 섬으로 인도하여 여러가지 보물을 만족케 한 연후에 그들을 거느리고 염부제로 돌아온다.

선남자여, 나는 큰 배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지만 한 번도 실수한 일이 없다. 어떤 중생이 내 몸을 보거나 내 법을 들은 이는 영원히 나고 죽는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고 온갖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모든 애욕의 바다를 탈피고 지혜의 광명으로 세 세상 바다를 비추며 모든 중생의 고통바다를 끝내 준다. 모든 중생의 마음바다를 깨끗이 하고 모든 세계바다를 빨리 정정케 한다. 시방의 큰 바다에 두루 가서 모든 중생의 근성바다를 알고 모든 중생의 수행바다를 두루 알고 모든 중생들의 바다를 널리 떠든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크게 가없이 여김을 으뜸으로 삼는 행’을 얻었으므로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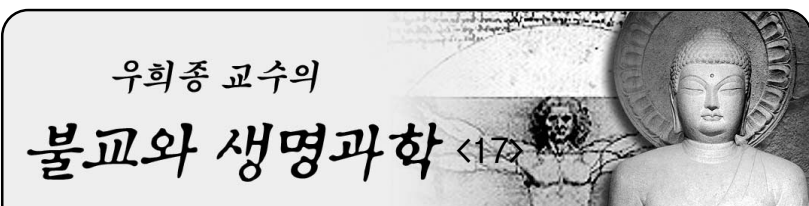
일 나를 보거나 내 음성을 듣거나 나와 함께 있거나 나를 생각하는 이는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한다.”

바시라 선지식은 뱃사공으로서 항해술의 달인이다. 그의 이름이 바시라(재해)대인 것은 그가 바다에 관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또 항해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잘 알기 때문에 항해에 자유자재한 까닭이다. 바다는 광대무변하면서도 변화무쌍한 곳이다. 그 속에는 무량한 보배가 있지만 무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그는 이러한 바다에 사람들을 배에 태우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길을 가게 하며, 보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이익을 얻게 해주는 것이다.

그는 항해술만 재능한 것이 아니다. 불법의 바다 및 생사(生死)의 바다에 통달해서 중생을 생사의 바다에서 구제해 준다. 바시라 뱃사공의 ‘크게 가없이 여김을 으뜸으로 삼는 행’은 생사의 바다에서 대비(大備)로써 중생을 건져내는 보살행을 말하는 것이다. 인생이란 생사의 바다를 헤치면서 나아가는 항해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생사의 바다를 어떻게 해서 건너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불도(佛道)의 문제이다.

바시라 뱃사공은 대비심(大備心)이랄까 생사의 바다에서 중생을 건져내는 원동력으로써,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사의 바다 속에 들어가서 생사의 바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밝게 잘 아는 지혜를 갖추어서 그들을 이익되게 해야 한다고 설한다. 그리고 모든 중생들의 바다에 두루 널리 따라가 주면서 그들에게 공덕바다를 닦게 하고 온갖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17>

비만 그리고 불교

요즘 생명과학의 첨단은 소위 삶의 질을 위한 약의 개발로도 이어지고 있어 ‘행복약물(happy drugs)’이라는 일련의 신약개발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잘 알려진 약물들로서 비아그라나 먹는 비만치료제 등이 있다. 이러한 행복약은 사람들의 과잉 욕심을 채우거나 합리화 하는 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마음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여 심신의 안정을 주는 효과도 있기에 환영할 만하다. 비만에 있어서도 요즘은 비만치료제와 더불어 비만 유전자도 동물에서 발견되어 그동안 선진국 사람들을 고민시킨 비만 문제도 곧 해결될 것처럼 언론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 이치를 잘 들여다보면

먹는 지극한 마음을 담고 있다. 이러한 오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다시 쓴다면 다음의 간단한 삼관제(三觀戒)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첫째, 이 음식이 법계의 시주물임을 알고 둘째, 이 음식이 내 것이 아니라 중생의 것임을 알아 셋째,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 이 음식을 받습니다. 본디 이 법계 속에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이의 것이기도 하기에, 너와 내가 곧 부처님임을 알아 항상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공양을 들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 생활한다면 당연히 불필요한 질병에 의한 고통은 없앨 수 있고, 동시에 인연으로 받은 몸을 사용하다 갈 때까지 잘 관리하여 사

‘마음공부’가 모든 병 치료의 근원

몸 소중히 관리하다 돌려주어야

사람의 질병은 대부분 자기가 지은 바에 의해 오며,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질병에 대한 좋은 방법으로서 사람의 욕망을 다루는 마음공부도 있다.

비만이란 과도한 섭취로 인해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많이 남아도는 잉여에너지가 축적된 모습이다. 불자라면 우리의 존재가 다른 존재에 의존해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내용(眞容)에 과도한 섭취라는 것은 나의 욕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진정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부터 빼앗아 내가 취했을 의미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불자의 비만이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너무 엄격한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식사 때 늘 외우는 오관제(五觀戒)에도 존재의 연기적 관계와 자신을 돌아보며 도를 위해 음식을

용하다가 때가 되면 좋게 제 갈 곳으로 돌려줄 수 있다. 부처님 말씀에 의거하여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유지한다면 주위의 사람들도 고통을 덜어 주는 것이니 자리(自利)와 이타(利他)가 서로 다른 말이 아님을 알고 부처님의 말씀이아말로 이 욕망의 사대에 철단 생명과학이 이루어 내는 것보다 더 우월한 방법과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삶을 부처님께서 설한 과학적 말씀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욕망이라는 함정에 걸려들어서 자신을 굳이 철단 생명과학이라는 방법으로 임시 찰떡을 해가면서 살 것인지의 선택의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각자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지난 회에서 견성성불의 뜻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본각(本覺), 불각(不覺), 시작(始覺) 개념을 소개하였다. 본각이란 일체중생일부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즉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념이다. 다시 말해,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모든 중생이 본래 깨쳐 있다’는 말로 바꾼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은 ‘불성’이라는 말을 ‘부처가 될 잠재적인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보는 데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다. 본래 깨쳐 있다면 본래 부처라는 말이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부처인가? 세간에서 온갖 탐욕을 부리며 번뇌 속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찌서 부처라는 말인가? 증명해 보라!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라! 이런 질문과 요구가 당연히 쏟아질 것이고 이에 답변하는 논변과 법문도 많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조리 있게 설명한다 해도, 이에 대해 아무리 설득력 있고 감동 깊게 설파를 해준다 해도,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이다.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경론(經論)에서도 이런 대목에 오면 흔히 ‘부사의(不思議)’, 요즘 쓰는 말로는 ‘불가사의(不可思議)’, 즉 이리저리 생각을 굴려도 의논하여 해명될 것이 아니라는 말로 결론을 짓곤 한다.



나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경론(經論)에서도 이런 대목에 오면 흔히 ‘부사의(不思議)’, 요즘 쓰는 말로는 ‘불가사의(不可思議)’, 즉 이리저리 생각을 굴려도 의논하여 해명될 것이 아니라는 말로 결론을 짓곤 한다.

선의 세계 ⑭

견성성불(見性成佛)-2

조향이 있다. 이해의 길은 막혔지만 그것을 받아들여 믿으면 그 종교의 신자요, 거기에서 못 믿겠다고 나가떨어지면 신자가 못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조물주이며 예수는 그 아들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 나라는 기독교의 이른바 삼위일체(三位一

동복아 대승불교의 기본 신조로서, 비유를 통해서 좀더 그럴 듯하게 설명을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진위(眞僞)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말도 할 사할은 아니다.

아무튼, 본각 개념에서 참으로 아리송한 것은 ‘본래’라는 말이다. 그 말이 가지는 뉘앙스가 참으로 모호하다. 중생이 곧 부처이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내가 그것을 알 건 모르건 아무튼 간에 너는 부처다!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이러고 말 수도 있다. 한편으로, ‘본래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어감도 있다. ‘아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르고 있다’는 사정을 암시하고 있다. 하기는, <대승기신론>에서는 본각이니 불각이니 시작이니 하는 말도 원래 필요 없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말로 설명을 하려다보니 할 수 없이 집적 그런 구별하는 개념들을 동원할 뿐이라고 하였다. 본래 부처인 자기 정체를 그대로 살면 되는 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말로 된 설명을 요구하는 사정, 설명을 듣고도 아리송해지는 사정, 바로 그것이 중생의 근본적인 역설을 나타낸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감동깊은 설파라도 결국 믿음의 문제

어느 종교에나 그 핵심 교의를 불독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추구해 가다보면 더 이상 논리와 사변으로써 해명할 길이 막히는 대목, 달리 표현하자면 말의 길이 끊어지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대목이 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그 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신조(信條, creed), 즉 믿음의

體) 교의가 한 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代贖)하였고 이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신조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증명되고 말도 할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마느냐 하는 신앙고백의 문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선언은

(2003년 가을 - 겨울, 중국 / 제주도 편)
고품격 성지순례! 실속 있는 기적!

삼보에 귀의하옵고 판매가와 일체의 추가경비가 없습니다! (비자유금 No! 팁 No! 옵션 No) 기존의 여행과는 차별화 된 서비스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 10/26 - 제주/마라도 3일 21만원
- ◆ 11/ 2 - 상해/항주/보타산/낙가산 69만원

중국 제1 불교왕국 관세음보살도량 75만원
- 상해 / 항주 / 보타산 / 낙가산 5일

신라김교각 스님의 지장왕도량 79 만원
- 남경 / 구화산 / 황산 / 항주 / 소주 5일

구름의 불산,보현보살 도량 - 79만원
- 아이산 / 낙산대불 / 대족석각 5일

문수보살도량 - 69 만원
- 북경 / 만리장성 / 오대산 / 운강석굴

제주 우도 / 마라도 / 제주 3일 - 27 만원

* 자유여행을 원하시는 분을 위한 할인항공권 및 호텔수배 도 해드립니다.

(주) 행복만선
대표전화 02) 720-8490

자비수관(慈悲手觀) 수행자를 초청합니다

자비수관은 관세음보살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자비로움을 나타내며, 몸에 대한 갖가지 견해와 번뇌가 정화되어 마음의 본래모습을 드러내어 이 자비수로 대비심과 지혜가 드러남이 마치 한송이 연꽃이 마음속에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 강의개요

○ 개강 및 일시	○ 2003년 10월 22일 (수) 오후 7시 본 강의: 10월 22일(수) ~ 11월 26일(수)
○ 장 소	동산 법당(동산불교회관 내)
○ 지도법사	지운스님 (전 송광사 강주) (인도 다람살라 수행)
○ 내 용	4년제 수행중 특이 "불"을 청념으로 관찰하는 자비수관으로 관세음 보살의 지혜와 자비심을 증득함
○ 대 상	수행에 관심있는 분 50명
○ 수 련 동 참 금	10만원(교재제군) 국민은행 016-01-0226-236 동산반야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www.dongsanbud.net

신비의 마이산 탐사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양주

진안 마이산 탐사
063) 433-2900, 0303
432-0652, 0072